

# 비전통적 학습자의 간호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주미경 · 이화자 · 황인영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 Impa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to Major Satisfaction and Campus-life Adaptation of Non-traditional learners

Mee Kyoung, Joo · Wha Ja, Lee · In Young, Hwang

*Department of Nursing, Kyungbuk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descriptive survey on non-traditional nursing students' motives for major selection and to examine how the motives affect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mpus-life adaptation.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1 to 15, 2017, and the questionnaires from 137 nursing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for Window Program. **Results** : The 108 subjects (78.8%) choosing nursing majors by intrinsic motives selected their majors in consideration of their aptitudes, interests, and talents. Based on their job prospect, recommendation or high school record as extrinsic motive, the 29 subjects (21.2%) selected nursing majors.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pre-admission ( $\chi^2 = 9.94$ ,  $p = .007$ ), age ( $\chi^2 = 11.16$ ,  $p = .004$ ) and marital status ( $\chi^2 = 4.20$ ,  $p = .040$ ). Although the motive for major selection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major satisfaction, the motive for the selection of the major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ampus-life adaptation( $p = .022$ ). The intrinsic motive group showed 9.255 times more adaptation to campus-life and 4.418 times higher to academic adjustment than extrinsic motive group.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ustomized individual counseling program and campus-life adaptation program which is based on motive for majors selection to help non-traditional nursing students adapt to university life after entering university.

**Key words** : Learners, Major, Motivation, Satisfaction, Adaptation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2014년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5세 이상의 대학생이 208,787명으로 9.8%정도이며, 신입생의 비율도 3,946명으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해마다 만학도인 비전통적 학습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1].

비전통적 학습자인 만학도의 대학진학 동기를 다음 4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사회의 학력중심 지상주의에 대한 순응을 위해서이고, 둘째, 만학도의 일반 학생과의 대학생활에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배움의 즐거움이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기요인이 되어서이며, 셋째, 만학도의 대학생활의 좌절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지혜를 배우게 됨으로써 의미 있는 대학생활의 현장체험을 위해서이고 넷째, 만학도의 대학생활경험 후 삶의 변화는 실질적인 인생의 삶에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만학도들은 자기효능감의 상승으로 자아정체성 회복과 대학교육에서의 배움을 통한 지식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도 하였다[2]. 또한, 최근에 대학의 정규학위과정 밖에서 제공되었던 교육기회가 점점 정규대학제도 안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만학도’인 비전통적 학습자를 생물학적 특성인 나이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고등교육 표준 연령을 넘어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습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2-4].

대학입학자격의 특징, 대학입학의 시점, 대학교육 참여형태 등의 다양한 이유로 고등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비전통적 학습자는 새로운 유형의 고등교육 학습자로 대학 내에서 소수자이며 대학입학자격과 입학시점 등 다양한 이유로 고등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대학생을 지칭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의 불안정으로 인해 점차 취업상황이 나빠지고 전문직을 선호하는 사회흐름으로 인해 비교적 취업률이 높은 간호학과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는 여러 입시전형을 통해 이미 타 전공을 졸업하거나 사회생활 중에 간호학과에 늦깎이 학생으로 입학하는 비전통적 학습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강의실과 임상실습 현장에서는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한 신입생 사이에 상당수의 비전통적 학습자가 섞여 같이 강의와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고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들의 순발력과 비전통적 학습자의 연륜이 학습현장을 조화롭게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져 어려운 학습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한편, Song[5]은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선택 중에 중요한 선택으로 사회에 진출을 위한 자신의 능력을 준비하기 위한 행위로 보았다. 그러나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가 선택한 전공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자신이 선택한 학과의 전공이 취업률을 보장해줄 수는 있으나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공에 대한 회의감이나 방황 등으로 인해 결국은 중도탈락하기도 한다. 중도탈락이 단순히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사실 이상의 심각한 의미를 지니며 이는 개인의 경우, 일종의 실패경험으로 받아들여 개인의 진로개척 기회 상실로 이어지며 직업획득기회의 제한과 가장 기초적인 삶의 안정화를 기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6,7]. 전공선택 동기를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Jeong[8]은 개인적 동기요인으로 적성과 흥미, 장래하고 싶은 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사회적 동기요인로는 인기전공, 취업 전망, 어렵지 않은 전공공부, 주변 권유로 분류하였다. 또한, Song[05]은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재적 동기 요인에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 즉 부모, 선생님, 또래집단, 취업가능성, 성적, 인기학과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내재적 동기요인으로 적성이나 흥미, 소질 등으로 분류하였다. Oh[9]는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내재적 요인과 개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재적 요인 중 중점이 되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공 선택 동기의 개념을 “전공 선택 시 자신이 해당 전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차적 원인이나 계기”라고 하였다.

최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선택동기 연구에서는 41.5%의 간호대학생이 적성 또는 흥미 등 내재적 동기로 간호학을 선택하였으며, 과반수인 58.5%의 간호대학생이 취업 전망과 고등학교 성적의 외재적 동기를 이유로 간호학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10-12]. 요즈음 간호학과에의 경우에도 정원의 적체는 10%에서 최고 30%까지 대졸자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비전통적 학습자인 늦깎이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동기에 대한 연구가 없어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이다[13-15]. 전공만족은 인지와 정서의 복합체로서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하며, 개인이 속한 전공학과 내에서의 행동은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05]. Bang과 Cho[16]는 간호대학생들이 올바른 진로준비를 하고 간호사로서 자질을 갖추어 임상현장에 잘 적응하며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전공만족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16]. Ha[13]는 학과에 대한 만족은 전공의 교과내용에 대한 교과만족, 교수-학생 간의 관계에 대한 관계만족,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에 따른 일반만족, 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인식만족, 학교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학교만족의 총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으나, Song[5]은 전공은 만족하지만 학교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만족을 제외한 일반만족, 교과만족, 인식만족, 관계만족 요인만을 주장하였다.

전공만족도는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5], Oh[9]는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들과 다방면으로 요구되어 지는 것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어려움 없이 극복하려는 의지가 대학생활 만족감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대학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생기게 하는 생활의 만족감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전공선택

동기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전공선택동기 하위변인 중 개인적 전공선택동기는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하위변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전공선택동기는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사회적응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의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을 확인하고, 세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9]. Kim, Yoo와 Park[10]은 전공선택동기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Kim과 Seo[17]도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오늘날 대학의 당면과제는 대학생들의 전공선택에 있어 그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그들의 미래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공으로서의 만족도와 이를 성취하는데 있어서의 대학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공선택동기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상이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나 점차 간호학과내의 학생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비전통적 학습자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 나아가 그들의 대학생활만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간호학을 전공하는 비전통적 학습자들이 일반 간호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교내에서의 이론교육과 임상에서의 실습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하는 부담감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하나 이를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중 비전통적 학습자의 간호학의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을 확인하고, 세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통적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비전통적 학습자의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3. 용어정의

#### 1) 비전통 학습자

최근에 대학의 정규학위과정 밖에서 제공되었던 교육기회가 점점 정규대학제도 안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만학도’인 비전통적 학습자를 생물학적 특성인 나이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고등교육 표준 연령을 넘어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습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2-4]. 즉, 성인대학생(adult college student) 혹은 비전통 학습자(non-traditional student)는 만학도, 고령학습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학령기를 넘어서 ‘나이든 학습자’를 지칭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성인연령인 25세 이상의 나이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중 비전통적 학습자의 간호학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자는 자료 수집을 허가한 경기북부지역 K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여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들로 편의 추출하여 자가기입식 설문지 작성을 의뢰하였다.

총 1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56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13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자가기입식 설문지 작성에는 약 20분간 소요되었다.

또한, G\*Power 3.1.3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3,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공변량 3개를 선정하였을 때, 111명의 표본 수가 산출되어 본 연구의 137명은 적정표본수를 충족하고 있다.

### 3. 연구 도구

#### 1) 전공선택동기

본 연구에서의 전공선택동기는 Oh[9]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오지혜의 도구는 전공선택의 내재적 동기 요인(적성, 관심, 소질, 장래직업) 4문항, 외재적 동기 요인 4문항(전공인기도, 사회적인식, 주변 권유, 성적적합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내재적 동기 Cronbach's  $\alpha = .694$ , 외재적 동기 Cronbach's  $\alpha = .764$ , 전체 Cronbach's  $\alpha = .808$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오지혜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전공선택동기를 측정하였으며 내재적 동기의 Cronbach's  $\alpha = .85$ , 외재적 동기 Cronbach's  $\alpha = .61$ , 전체 Cronbach's  $\alpha = .75$ 로 나타났다. 각 개인별로 전공선택에서 있어 내재적 동기의 점수 합과 외재적 동기의 점수 합을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쪽을 전공선택요인으로 평가하여 내재적 동기집단과 외재적 동기집단으로 나누어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2)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 전공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a[13]가 사용한 설문지를 Song[5]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일반만족 7문항, 교과만족 6문항, 관계만족 4문항, 인식만족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ong[5]의 연구에서는 일반만족 Cronbach's  $\alpha = .88$ , 교과만족 Cronbach's  $\alpha = .79$ , 관계만족 Cronbach's  $\alpha = .76$ , 인식만족 Cronbach's  $\alpha = .79$ 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만족 Cronbach's  $\alpha = .87$ , 교과만족 Cronbach's  $\alpha = .83$ , 관계만족 Cronbach's  $\alpha = .77$ , 인식만족 Cronbach's  $\alpha = .84$ 로 나타났다.

### 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tryk[18]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ACQ: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를 Song[5]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학업적응 24문항, 사회적응 14문항, 개인정서적응 13문항, 대학환경적응 9문항,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Song[5]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적응 Cronbach's  $\alpha = .85$ , 사회적 적응 Cronbach's  $\alpha = .87$ , 개인정서적 적응 Cronbach's  $\alpha = .74$ , 대학환경적 적응 Cronbach's  $\alpha = .79$ , 전체 Cronbach's  $\alpha = .90$ 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적응 Cronbach's  $\alpha = .81$ ., 사회적 적응 Cronbach's  $\alpha = .83$ , 개인정서적 적응 Cronbach's  $\alpha = .65$ , 대학환경적 적응 Cronbach's  $\alpha = .84$ , 전체 Cronbach's  $\alpha = .89$ 로 나타났다.

###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우선 자료수집에 앞서 각 학년 반의 학생대표를 통해 연구자가 직접 해당 반을 방문하여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비밀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 후 자료수집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때 개인적 사항을 포함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연구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표식이 없는 설문 봉투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회수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Two-tailed, Significance  $p < .0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Fisher's exact -test,  $t$ -test, Two-way ANOVA를 통해 확인하였다.

전공선택동기가 연구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일반적 특성 중 연구 변수에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을 공변량으로 통제한 후 ANCOVA를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137명 중 간호학 전공 선택한 동기가 자신의 적성과 관심, 재능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한 내재적 동기요인집단은 108명(78.8%), 전공의 인기도, 사회적 인식, 주변의 권유와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한 외재적 동기요인집단은 29명(21.2%)이었으며, 학년을 제외한 입학 전 학력( $\chi^2 = 9.94, p = .007$ ), 연령( $\chi^2 = 11.16, p = .004$ ) 및 결혼여부( $\chi^2 = 4.20, p = .040$ )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2. 일반적 특성과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차이

일반적인 특성인 학년, 입학 전 학력, 연령에 따른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기혼자에서( $F = 5.74, p = .018$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학생활적응의 경우에는 두 집단 간 학년, 입학 전 학력, 입학 전, 연령 및 결혼여부에 따라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전공만족도 중 일반만족도는 기혼자( $F = -2.92, p = .004$ )와 내재적 전공선택집단( $F = -3.52,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교과만족도는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25세 이하인 집단에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F = 3.65, p = .029$ ), 기혼자에서 높았으나( $F = -2.31, p = .022$ )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교과만족도의 차이는 없었다. 대학생활적응 중 학업적응은 내재적 전공선택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F = -2.58, p = .011$ ), 환경적응은 기혼자에서( $F = 4.11, p = .045$ )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ype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N= 137)

Variables		Motive for Major Selection			$\chi^2(p)$
		Intrinsic Motive n(%)	Extrinsic Motive n(%)	Total n(%)	
Grade	1st	20(14.6)	7(5.1)	27(19.7)	1.48(.688)
	2nd	30(21.9)	6(4.4)	36(26.3)	
	3rd	32(23.4)	7(5.1)	39(28.5)	
	4th	26(19.0)	9(6.6)	35(25.5)	
Pre-Admission	high school	20(14.6)	13(9.4)	33(24.1)	9.94(.007)
	diploma	66(48.1)	9(6.6)	75(54.7)	
	bachelor	22(16.1)	7(5.1)	29(21.2)	
Age	≥ 25ys	23(16.8)	13(9.5)	36(26.3)	11.16(.004)
	26~29	51(37.2)	14(10.2)	65(47.7)	
	≤ 30ys	34(24.8)	2(1.5)	36(26.3)	
Marital Status	married	18(13.1)	0(0)	18(13.1)	4.20(.040)
	non-married	90(65.7)	29(21.2)	119(86.9)	
Total		108(78.8)	29(21.2)	137(100.0)	

**Table 2.** Differences of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Adaptation between Intrinsic and Extrinsic Group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ource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Adaptation				
	SS	df	MS	F	p	SS	df	MS	F	p
Motive	.40	1	0.40	2.17	0.143	0.00	1	0.00	0.08	0.780
Grade	0.37	3	0.12	0.67	0.572	0.03	3	0.01	0.21	0.893
Motive × Grade	0.30	3	0.10	0.54	0.659	0.23	3	0.08	1.49	0.222
Error	23.36	127	0.18			6.59	129	0.05		
Total	2023.81	135				1333.75	137			
Motive	0.46	1	0.46	2.57	0.112	0.00	1	0.00	0.03	0.871
Pre-Admission	0.08	2	0.04	0.21	0.809	1.00	2	0.05	0.91	0.405
Motive × Pre-Admission	0.86	2	0.43	2.43	0.092	0.01	2	0.01	0.09	0.914
Error	22.91	129	0.18			6.90	131	0.05		
Total	2023.81	135				1333.75	137			
Motive	0.72	1	0.72	4.17	0.043	0.00	1	0.00	0.04	0.846
Age	0.45	2	0.23	1.30	0.277	0.02	2	0.01	0.19	0.824
Motive × Age	0.32	2	0.16	0.92	0.402	0.07	2	0.04	0.69	0.506
Error	22.37	129	0.17			6.68	131	0.05		
Total	2023.81	135				1333.75	137			
Motive	0.25	1	0.25	1.42	0.236	0.03	1	0.03	0.57	0.451
Marital status	0.99	1	0.99	5.74	0.018	0.19	1	0.19	3.73	0.055
Motive × Marital status	0.00	0	.	.	.	0.00	0	.	.	.
Error	22.81	132	0.17			6.92	134	0.05		
Total	2023.81	135				1333.75	137			

Table 3. Differences of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Adaptation on sub-fac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General Satisfaction		Curriculum Satisfac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Total	
		Mean ± SD	F or t (p)	Mean ± SD	F or t (p)	Mean ± SD	F or t (p)	Mean ± SD	F or t (p)	Mean ± SD	F or t (p)
Major Satisfaction	Grade	1st	3.99 ± 0.41		3.64 ± 0.48		3.56 ± 0.54		4.17 ± .052	3.87 ± 0.37	
		2nd	4.17 ± 0.52	1.09	3.64 ± 0.54	0.58	3.51 ± 0.61	0.46	4.34 ± 0.57	3.93 ± 0.43	0.60
		3rd	4.01 ± 0.50	(.356)	3.77 ± 0.65	(.632)	3.42 ± 0.69	(.708)	4.08 ± 0.58	3.85 ± 0.47	(.610)
		4th	3.96 ± 0.64		3.63 ± 0.55		3.63 ± 0.55		4.15 ± 0.49	3.81 ± 0.42	
	Pre-Admission	high school	3.89 ± 0.44		3.71 ± 0.50		3.49 ± 0.68		4.05 ± 0.61	3.80 ± 0.38	
		diploma	4.07 ± 0.55	1.62	3.68 ± 0.57	0.15	3.46 ± 0.63	0.03	4.24 ± 0.49	3.89 ± 0.44	0.46
		bachelor	4.09 ± 0.53	(.202)	3.63 ± 0.62	(.863)	3.45 ± .072	(.974)	4.21 ± 0.59	3.88 ± 0.44	(.631)
	Age	≥25ys	3.98 ± 0.51		3.79 ± 0.58		3.54 ± 0.72		4.27 ± 0.60	3.91 ± 0.45	
		26~29	3.96 ± 0.49	2.91	3.54 ± 0.55	3.65	3.37 ± 0.67	1.18	4.16 ± 0.49	3.78 ± 0.39	2.48
		≤30ys	4.21 ± 0.58	(.058)	3.80 ± 0.53	(.029)	3.55 ± 0.55	(.310)	4.15 ± 0.60	3.97 ± 0.43	(.088)
	Marital Status	married	4.37 ± 0.52	-2.92	3.95 ± 0.64	-2.31	3.72 ± 0.68	-1.81	4.29 ± 0.52	4.11 ± 0.46	-2.76
		non-married	3.98 ± 0.51	(.004)	3.63 ± 0.54	(.022)	3.42 ± 0.65	(.072)	4.17 ± 0.55		(.007)
	Motive for Major Selection	Intrinsic Motive	4.22 ± 0.53	-3.52	3.70 ± 0.55	-1.13	3.47 ± 0.67	-0.54	4.19 ± 0.54	3.90 ± 0.43	-1.93
		Extrinsic Motive	3.73 ± 0.44	(.001)	3.57 ± 0.44	(.260)	3.41 ± 0.62	(.591)	4.18 ± 0.60	3.73 ± 0.39	(.056)
Campus-life Adaptation	Variable	Academic Adaptation	F(p)	Social Adaptation	F(p)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F(p)	Campus Circumstance Adaptation	F(p)	전체	F(p)
	Grade	1st	3.22 ± 0.37		3.36 ± 0.47		2.91 ± 0.34		3.83 ± 0.60	3.05 ± 0.18	
		2nd	3.16 ± 0.33	0.25	3.34 ± 0.61	0.33	2.89 ± 0.39	0.45	3.93 ± 0.73	3.18 ± 0.22	1.97
		3rd	3.20 ± 0.44	(.864)	3.42 ± 0.42	(.800)	2.80 ± 0.39	(.716)	3.81 ± 0.46	3.10 ± 0.21	(.122)
		4th	3.15 ± 0.38		3.44 ± 0.48		2.88 ± 0.44		3.89 ± 0.61	3.11 ± 0.28	
	Pre-Admission	high school	3.18 ± 0.35		3.31 ± 0.44		2.98 ± 0.43		3.78 ± 0.69	3.06 ± 0.22	
		diploma	3.19 ± 0.38	0.02	3.45 ± 0.54	1.10	2.83 ± 0.39	1.69	3.94 ± 0.55	3.15 ± 0.24	2.03
		bachelor	3.18 ± 0.38	(.990)	3.33 ± 0.44	(.336)	2.82 ± 0.32	(.189)	3.78 ± 0.61	3.08 ± 0.20	(.135)
	Age	≥25ys	3.15 ± 0.41		3.48 ± 0.59		2.82 ± 0.41		3.86 ± 0.64	3.14 ± 0.25	
		26~29	3.17 ± 0.36	0.77	3.37 ± 0.42	0.79	2.85 ± 0.40	0.87	3.84 ± 0.62	3.15 ± 0.25	3.08
		≤30ys	3.25 ± 0.38	(.463)	3.34 ± 0.51	(.457)	2.94 ± 0.36	(.421)	3.93 ± 0.53	3.03 ± 0.17	(.049)
	Marrial Status	married	3.36 ± 0.41	0.00	3.29 ± 0.53	0.07	2.92 ± 0.34	0.65	3.97 ± 0.42	2.99 ± 0.23	0.13
		non-married	3.15 ± 0.38	(.985)	3.41 ± 0.50	(.799)	2.86 ± 0.41	(.423)	3.86 ± 0.62	3.13 ± 0.24	(.718)
	Motive for Major Selection	Intrinsic Motive	3.23 ± 0.39	-2.66	3.42 ± 0.49	-1.47	2.87 ± 0.38	-0.41	3.91 ± 0.56	3.12 ± 0.23	-0.37
		Extrinsic Motive	3.03 ± 0.32	(.011)	3.28 ± 0.53	(.144)	2.84 ± 0.43	(.683)	3.70 ± 0.72	3.10 ± 0.24	(.712)

### 3.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특성(연령, 결혼)을 공변량으로하여 전공선택동기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전공만족도( $F=0.17$ ,  $p=.679$ ), 대학생활적응도( $F=0.18$ ,  $p=.893$ ) 모두 유의하지 않아 회귀선 기울기의 동일함을 확인한 뒤

ANCOVA를 수행하였다(Table 4). 전공만족도에 있어, 연령과 결혼을 공변량으로 하고 전공선택동기를 독립변수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한 결과,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및 하부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연령과 결혼을 공변량으로 두었을 때, 전공선택동기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20$ ,  $p=.030$ ).

부분에타제곱은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며 전공 선택동기가 대학생활적응에 3.5%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내재적 동기인 학생들이 외재적 동기 학생들에 비해 9.26만큼의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의 하부영역인 학업적응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31$ ,  $p=.022$ ), 전공선택동기가 학업적응에 3.9%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내재적 동기인 학생들이 외재적 동기 학생들에 비해 4.42만큼의 학업적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사회적 적응, 개인 정서적 적응, 대학환경적응을 종속변수로 두고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공선택동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낮은 나이에 간호학에 입문한 비전통적 학습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를 파악하고, 이들의 간호학 전공선택동기에 따라 간호학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에 차이와 영향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 137명 중 내재적 동기에 의해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이 108명(78.8%), 외재적 동기에 의해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이 29명(21.2%)이었다. 내재적 동기로 간호학을 선택한 집단은 전문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높았고 미혼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외재적 동기집단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기혼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간호학을 선택하는데 있어 전통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전공의 인기도, 사회적 인식, 주

**Table 4.** Effect of Type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i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Variables	Sources	SS or B	SE	F or t	$p$	df	$\eta^2$
Major Satisfaction	Total	812.81		3.23	.025	3	.068
	Error	86.70	7.28	11.90	.000	1	.516
	Age	0.03	0.17	0.17	.867	1	.000
	Marital Status	-5.36	3.17	-1.69	.094	1	.021
	Motive for Major Selection [Intrinsic Factor]	2.77	1.96	1.41	.161	1	.015
	Motive for Major Selection [Extrinsic Factor]	0					
Campus-life Adaptation	Total	2770.86 <sup>a</sup>		2.39	.072	3	.051
	Error	209.87	15.63	13.43	.000	1	.575
	Age	-0.46	0.36	-1.25	.213	1	.012
	Marital Status	-9.01	6.81	-1.32	.188	1	.013
	Motive for Major Selection [Intrinsic Factor]	9.26	4.22	2.20	.030	1	.035
	Motive for Major Selection [Extrinsic Factor]	0					
Academic Adaptation	Total	812.33 <sup>a</sup>		3.41	.019	3	.071
	Error	83.01	7.08	11.72	.000	1	.508
	Age	-0.17	0.17	-1.05	.294	1	.008
	Marital Status	-5.72	3.09	-1.85	.066	1	.025
	Motive for Major Selection [Intrinsic Factor]	4.42	1.91	2.31	.022	1	.039
	Motive for Major Selection [Extrinsic Factor]	0					



변의 권유와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한 외재적 동기가 높은 것[10]에 비해, 비전통적 학습자 간호대학생은 다른 학문이나 다른 진로계획이 후 본인의 적성이나 재능을 확인 할 기회가 있었고, 결혼 등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을 기회가 적은 집단에서 내면적 동기에 의하여 간호학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전통적 학습자에서는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에 의한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정도는 차이는 결혼여부를 제외하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5]의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전공선택의 내재적 동기요인이 대학생활적응 중 사회적 적응과 환경적 적응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일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에서 적성이나 흥미를 가지고 입학한 학생이 취업이나 교사의 추천 등으로 입학한 학생에 비하여 간호학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5,10], 본 연구대상인 비전통적 학습자에서는 전공선택동기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전통적 학습자들이 전공선택동기에 관계없이 일반 간호대학생에 비해 좀 더 대학생활에 충실하려는 절실함이 더 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통해 이미 습득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공학과에 대한 일반만족에서는 내재적 동기 전공선택집단에서 만족감이 높았고, 교과만족에서는 30세 이상과 25세 이하 연령에서 기혼자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스스로의 내재적 동기에 의하여 전공을 선택한 집단에서 전공의 흥미도 전공의 가치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Jung과 Jeong[19]의 간호대학생의 학과 만족도에서 적성과 흥미로 입학한 학생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족도 하부영역인 교과만족도에서 내재적 전공선택 집단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관계만족에서도 4학년에서 관계만족도가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인식만족에서도 선택동기와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Jung과 Jeong[19]의 연구에서 교우와의 관계와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결과와 다른 결과

로 비전통학습자는 사회경험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미 경험하였고, Jang과 Moon[20]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진로준비를 비교적 낮은 학년에서 시작한다는 결과로 볼 때 대학생활의 목적이 관계형성 보다는 진로 및 취업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공만족도에 있어 연령과 결혼을 공변량으로 하고 전공선택동기를 독립변수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한 결과,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및 하부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일반대학생이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에 상관관계와 상대적 기여도를 보인 연구결과와[5,9,10] 다른 결과로 비전통학습자에 있어서 전공선택동기는 전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동기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과 결혼을 공변량으로 두었을 때, 전공선택동기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2.20, p=.030$ ). Kim, Yoo와 Park[10]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내재적 동기요인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지만 외재적 동기요인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고, Park과 Kim[21]의 보건계열을 포함한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개인적 동기요인과 수업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여 비전통학습자에 있어서도 전공선택동기는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일반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대학생활적응에 5%정도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인 연구[10]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3.5%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였다. 이는 비전통적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가 외재적 동기보다 높아 미치는 영향이 일반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결과 내재적 동기집단에서 외재적 동기 학생들에 비해 9.23만큼의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아 전공선택동기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학생보다 적지만, 내재적 동기로 간호학을 선택한 집단에서 대학생활적응이 좋음을 알 수 있었다. 학업적응에도 전공선택동기가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2.31, p=.022$ ), 내재적 동기집단에서 4.42만큼의 학업적응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인의 취미와 흥미로 간호학과에 입학한 대상자는 학업에 대한 동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이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20,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이다. 즉 입학연령에 관계없이 학업적응이 높고 내재적 동기로 입학한 학생이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ong과 Cho[22]는 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서는 전공을 선택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Park과 Han[23]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제안하였다[24-30].

본 연구결과 비전통학습자는 전공선택에 있어 내재적 요인에 의한 선택의 비율이 높았으며 내재적 동기로 간호학을 선택한 집단에서 만족도와 학업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전공선택동기가 대학생활적응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비전통학습자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대학생활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전공선택의 목적이 분명한 비전통학습자들을 위한 진로지도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비전통학습자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중 비전통적 학습자의 전공선택동기를 파악하고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K대학은 비전통적 학습자의 비율이 높고 남학생의 비율이 매우 적어 그 대상을 여학생으로 한정하여 진행했으며 이는 비전통적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연구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비전통적학습자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적

성과 관심, 재능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한 내재적 동기요인집단이 전공의 인기도, 사회적 인식, 주변의 권유와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한 외재적 동기요인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통학습자의 연령, 입학전 학력, 현재 학년은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이 없었다. 이는 일반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로 비전통적학습자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은 단순히 전공선택동기 보다는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도 프로그램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추후 연구를 통해 비전통학습자의 학업적응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전통적 학습자에 있어서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내재적 동기집단의 학생들이 외재적 동기집단 학생들에 비해 대학생활적응에는 9배 이상의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았으며, 학업적응에도 4배 이상의 학업적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늦깎이로 입학한 비전통적 학습자인 간호대학생이 점차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비전통적 학습자 간호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전통적 학습자 간호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초기 연구로 시행하였으며 그들의 특성을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후 질적연구방법을 통한 비전통적 학습자의 일상에 대한 심층연구나 일반대학생과의 대조군을 설정한 차이비교연구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이들 비전통적 학습자들이 늦게나마 어렵게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한 간호학의 전공만족도를 높이며 그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성공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잘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Korean education statistics service[Internet]. Jincheon-gun: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2017[cited 2017 April 20]. Available from: <http://kess.kedi.re.kr/index>.
2. Lim JH. A study on university education experience of students' who make through elderly students' screening process and meaning of it [master thesis]. Seoul: The Catholic University; 2015. p.1-113.
3. Ham YS, Kim HS, Cho IS, Lim JY.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1;17(3):536-544.
4. Kim BH, Shin JH. The influence of major choice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degree on department adaptation of mature learners in the nurse dept. of colleg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6;7(5):141-166.
5. Song YJ.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master thesis]. Busan: Dong-A University; 2013. p.1-98.
6. So BH. A study on situations and causes of university college freshmen's withdrawal [master thesis]. Seoul: Sogang University; 2015. p.1-127.
7. Lee MK, Han EJ, Hwang BM. A study on the vocational motives of university students. *Tourism Research*. 2016;41(3):113-130.
8. Jeong BY. The effects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vocation choice factors [master thesis]. Seoul: Kyonggi University; 2010. p.1-58.
9. Oh JH. The effects of career value and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on university life adaptation [master thesis]. Daejeon: Paichai University; 2016. p.1-76
10. Kim YJ, Yoo HN, Park MJ.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10):261-270.
11. Gong YJ.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adjustment who decided on their majors primarily based on extrinsic motiv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4;27(1):1-18.
12. Gong YJ, Lee EJ. Career adjustment process of college students who decided on their majors based on extrinsic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4;15(5):1771-1789.
13.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p.1-85.
14. Park HJ, Oh JW.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12(12):417-426.
15. Kang KS, Ko YS. Effects of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016;11(2):179-189.
16. Bang KS, Cho JK.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nursing and future career,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008;14(1):88-97.
17. Kim YS, Seo JY. Construction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15;26(6):1439-1452.
18. Baker RW, Siryk B.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1989.
19. Jung AC, Jeong SK. Factors affecting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4):587-595

20. Jang TJ, Moon MK.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Administration*. 2016; 22(4):344-352
  21. Park AS, Kim HK.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nd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2):511-519
  22. Song YJ, Cho GP.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Korean Education Inquiry*. 2016;34(4): 61-77.
  23. Park SH, Han SH.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8):517-526.
  24. Jeon HO.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ocial self-efficacy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6;22(2):171-181.
  25. Park HJ.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5;21(2):227-236.
  26. Cho HH, Kim NH.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4;20(4):548-557.
  27. Ko YJ, Kim IK.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1;17(3): 62-71.
  28. Moon YS, Han SJ. Impact of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1;17(1):72-79.
  29. Jang TJ, Moon MK.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7; 22(4):344-352.
  30. Moon IO, Lee GW, Jeong SH. Effect of image making programs on image making efficacy, positive thinking,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5;21(1):122-132.
-